

삼위일체 교리(the Doctrine of Trinity)

〈기독교의 3대 핵심 요소〉

1. 첫째, 계시종교

- ①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의 산물이 아니다.
- ②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때만 가능하다.
- ③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생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啓示, revelation)라고 한다.
- ④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것이 성경말씀이다.

2. 둘째, 삼위일체

- 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 ②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이다.
- ③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3. 셋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 ① 인간의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다.
- ②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 ③ 그리고 그것이 죄인에게 적용되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삼위일체의 정의와 오해〉

1. 삼위일체교리의 일반적 정의

- ①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이 존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다.”
- ② “God is one in His essential being, but in this being there are three persons, called Father, Son and Holy Spirit.”¹

2. 이 정의가 주는 혼돈성

- ① 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언한다
- ②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
- ③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가?
- ④ 그렇다면, 세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3. 삼신론적(三神論的) 접근

- ① 분명 성경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¹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p. 75.

- ② 만일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면 세 하나님은 각각 독자적 영역을 갖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 ③ 그럴 경우 세신들 사이에 상호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4. 양태론적(樣態論的) 접근(modalistic approach)

- 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
- ② 창조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 때에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중생과 성화를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
- ③ 실례: 1) 여기 어떤 한 40 대 가장이 있다. 2) 그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며,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된다. 3) 호칭과 역할은 다르지만 한 존재인 것처럼, 삼위일체도 이와 같다.

5. 삼위일체(Trinity)라는 용어의 사용불가 주장

- 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에 사용하면 안된다.
- ② 비록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으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③ 그런데,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것과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기에 시원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
-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보다 더 나은 표현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다.

<신구약에 계시된 삼위일체의 증거들>

1. 구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삼위일체의 증거

- 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 ②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③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것은 왕들이 사용하는 복수, 즉 “존엄의 복수”(plurals of majesty)이다.
- ④ 왕들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I”를 사용하지 않고 “We”를 사용=> “존엄의 복수”
- ⑤ 반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We”라고 말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I”로 표현!
- ⑥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
- ⑦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창 11:7)
- ⑧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

2.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 삼위일체의 증거

- 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 오실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 ②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낮을 때에 일어난 장면!
- ③ 특징=>성부, 성자, 성령이 요단강이라는 “장소”에서 세례를 받는 “시간”에 동시적으로 등장함
- ④ 이 사건은 삼위일체에 대한 양태론적 이해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반증함
- 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 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후 13:13)

〈삼위일체 교리의 등장 배경〉

1. 성경이 선언하는 유일신관

- 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신 6:4)
- ② 유대인들에게는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없음
- ③ 그들은 신 6:4 절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숫자적으로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고 믿기 때문

2. 단일신과 유일신에 대한 개념 정리의 필요성

- ① “단일신”과 “유일신”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
- ② 단일신은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하나”인 신을 말한다.
- ③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모슬렘의 신관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 ④ 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관에는 부적합한 용어이다.
- 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 ⑥ 이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이다.
- ⑦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3.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요 10:30-33)

- 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 ② 유대인들의 반응=>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요 10:31)
- ③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요 10:33)
- ④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이유는 그의 말의 참람함(blasphemy=신성모독)때문
- 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 “사람인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말!

- ⑥ 그래서 참람함 곧 신성모독죄라고 격하게 반응한 것!
- ⑦ 유대인들=> 신 6:4 절의 “하나”의 개념을 숫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였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됨

4. 요 5:17-18 절

- 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 ②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 ③ 유대인들의 반응=> 예수님을 죽이려 함
- ④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 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하는 의미!
- ⑥ 단일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납불가한 주장!

<삼위일체에 대한 명확한 교통정리>

1. 삼위일체의 교통정리²

- 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God is three persons).
- ② 각 위격은 완전히 하나님이다(Each person is fully God).
- ③ 한 하나님이 계시다(There is one God).

2. 첫번째 교통정리

- ①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 ②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심
- ③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심(distinct persons)
- ④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3. 두번째 교통정리

- ① “각 위격은 완전히 하나님이다.”(Each person is fully God)
- ② “성자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다!”
- ③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 ④ 본체라는 말의 헬라어 *μορφή*(모르페=> 1) 그 사람의 실제 형태 2) 외적 모습
- ⑤ 예수님은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실체라는 것!
- ⑥ 예수님은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

² 이 부분은 Wayne Grudem(웨인 그루뎀)의 *Bible Doctrine*, p.106-115 을 참조하고 인용함을 밝힌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이처럼 잘 교통정리한 학자가 드물다고 생각할 정도 뛰어나다.

4. 히 1:3 절

- 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 ② 이 말씀의 문맥=>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히 1:1-2)
- ③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인 이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
- ④ “본체”란 말의 헬라어 ὑπόστασις(히포스타시스)=> 1) 인격(person) 2) 속성(nature)
- ⑤ “형상”이란 말의 헬라어 χαρακτήρ(카라테르)=> 1) 낙인이 찍힌 마크 2) 정확한 표현(exact expression)
- ⑥ “그 본체의 형상”=>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참 하나님!

5.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다!

- 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
- ② 아나니아에 대한 베드로의 지적=> “성령을 속임”
- ③ 그러면서, 성령을 속인 것이 누구하게 거짓말하는 것? => 하나님!
- ④ 이것이 보여주는 것=> 성령은 하나님이다!

6. 세번째 교통정리

- ① “한 하나님이 계신다”(there is one God)
- ② 만일 삼위일체를 이 두가지로만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
- ③ “세 하나님(들)이 존재하신다!” 즉 삼신론(三神論, tritheism)이 되고 마는 것!
- ④ 이것 때문에 세번째로 필요한 교통정리가 바로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

7. 우리의 의문과 이에 대한 응답

- ①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 ② 이 의문에 대한 해답=> “하나님은 그의 신적 본질에서 하나이다”
- ③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그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8.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에 담긴 중요한 사실 하나 더!

- 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는 위격이시지만, 그들은 각기 제 뜻과 제 의지 대로 따로 움직이고, 각기 제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 ② 성자 예수님은 본래 그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³
- ③ 그러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케 하심으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심(빌 2-9-11).
- ④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저주의 죽음에 까지 내어주고, 아버지는 자신의 주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이 주라 시인받는 것을 보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심
- ⑤ 성령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주장을 늘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심(요 16:13-14)
- ⑥ 그리고 자신을 주라 시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는 일을 하심(고전 12:3)
- ⑦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영광을 따로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서로를 높이며, 구원역사를 진행하다 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 분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남
- ⑧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 분리되어, 따로 행하는, 삼신(三神, three gods)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삼위일체, trinity, that is, tri-une God)이심!

〈삼위일체교리의 발전사〉

1. 삼위일체교리의 핵심쟁점

- ① 초대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되심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
- ②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유대인들의 단일신관때문
- ③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요 5:17-18, 10:31-33 참조)
- ④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두 하나님들(two Gods)이 되질 않는가?
- ⑤ 이런 의문이 결국 삼위일체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이단적 가르침으로 변모됨

2. 다양한 단일신론(單一神論, Monarchianism)의 출현⁴

- ① 이들은 신 6:4 절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라는 믿음을 고수하려는데서 출발!
- ②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면서 문제가 발생함
- ③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하나이심”은 심각한 손상을 입을 판국에 놓임

³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5)

⁴ 이후에 전개되는 삼위일체교리의 역사는 루이스 벨코프의 『기독교교리사』 삼위일체교리의 역사부분(p.80-97)을 요약 정리하였다.

- ④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단일신론(Monarchianism)⁵

3. 역동적 단일신론(dynamic monoarchianism)⁶

- ① 대표적 주장자=> 사모사타의 바울(Paul of Samosata)
- ② 원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 ③ 예수는 원래 사람이다.
- ④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 능력인 로고스가 들어가면서 그의 인성이 점차 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 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 ⑥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한 분 되심도 손상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되심도 만족시키게 됨!

4. 양태적 단일신론(modalistic monarchianism)

- ① 하나님이 세가지 모양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는 주장
- ② 이것을 주장한 사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사벨리우스주의(Sabellianism)라고 부르기도 함
- ③ 사벨리우스는 연극무대에서 한 배우가 다른 가면(persona)을 쓰고 다른 배역으로 등장하듯이,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함
- ④ 사벨리우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와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는 성부(the Father)로 계시하심
- ⑤ 성육신과 십자가 구속에서는 아들(the Son)으로 계시하심
- ⑥ 그리고 중생과 성화에서는 성령(the Holy Spirit)으로 자신을 계시하심
- ⑦ 자기모순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양태론적 접근=>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장면(마 3:16-17)

5. 단일신론적 삼위일체 이단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① 이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이런 이단적 사상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 ② 좀 더 쉽고 명확하게 교리를 가르치려는 “선한 의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 ③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의 한 면만을 붙들고 편협하게 전체를 해석하므로써, 결국은 교회를 거짓된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6. 터툴리안(Tertullian, 약 155-230)

⁵ 단일신론으로 번역된 Monoarchianism 의 원래적 의미는 “단일한 기원 혹은 단일한 원리”(one origin or one principle)의 의미를 가진다. 원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로, “mone(one) + arche(beginning, origin, principle)”의 합성어이다. 참고로 “단일신”과 “유일신”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 단일신은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하나”인 신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모슬렘의 신관에게 적용되는 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관에는 부적합한 용어이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즉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⁶ “역동적”(dynamic)이라는 말의 근원적인 의미는 “능력과 에너지가 충만한”(full of power and energy)이다. 하나님은 단일한데, 그의 신적 능력(divine Logos)이 인간 예수 안에 가득차게 되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처럼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 ① 북아프리카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의 삼위일체교리의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
- ② “만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그때에는 하나님은 없다.”(If God is not one, then there is no God.)
- ③ “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삼위의 인격적 구별”(personal distinction of three persons within one God)
- ④ 구별된 세 인격(three distinct persons)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 분되심(the true divine monarchy) 곧 “하나님의 신적 본질의 하나됨”(the unity of divine substance)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함
- 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자 고민 끝에 그가 사용한 말이 바로 “삼위일체”(Trinity)이다.

7. 오리겐(Origen, 185-254)

- ① 북아프리카와 로마중심의 서방교회의 삼위일체교리에 영향을 끼친 인물=> 터툴리안!
- ②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 중심의 동방교회의 삼위일체교리의 형성에 영향을 준 인물=> 오리겐!
- ③ 오리겐의 삼위일체의 핵심=> “성자의 영원출생”교리(the Doctrine of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 ④ 성자가 어느 시간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
- ⑤ “성자가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없었다!” (there was no time when He was not.)
- ⑥ 왜냐하면 성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터 영원전부터 나셨기때문!
- ⑦ 시간의 한 시점에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 부터 나셨기에(begotten) 성자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 ⑧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빛으로부터 나온 빛”(light from light)라는 비유 사용

<아리우스와 삼위일체교리 논쟁의 종식>

1. 아리우스(Arius, d.336)

- ① 알렉산드리아교회의 장로출신으로서 삼위일체교리논쟁에 결정적인 불씨를 지핀 인물!
- ② 성부는 나지 않으셨고, 존재의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
- ③ 반면 성자는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 어느 한 시점에서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다.
- ④ “성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there is a time when he was not)
- ⑤ 아리우스의 삼위일체는 결국 단일신론(monarchianism)의 최절정판!

2. 아타나시우스(Athanasius, 300-373)의 비판

- ① 아타나시우스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위대한 신학자!
- ② 아리우스와 삼위일체교리논쟁을 주도하면서, 정통 삼위일체교리의 확립에 큰 공헌한 인물
- ③ 오리겐의 성자의 영원출생교리(the doctrine of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 from the Father)의 진정한 의도는 성부와 성자의 신적 본질이 동일함(the sameness of divine essence between the Son and the Father)을 강조하는데 있었다고 정확하게 지적함
- ④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것을 오해하여 성자가 성부에 의해 피조되었다고 주장함

- 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적본질(*homoousios*=*호모우시오스*)을 가지셨다는 것에서 세 위격의 구별과 한 하나님되심(the distinction of three Persons and the unity of God)을 확증함

3. 니케아 회의(the Ecumenical Council of Nicaea)

- ① 325년에 이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니케아에서 전체교회의 감독들의 회의가 개최됨
- ② 수많은 논쟁과 회의 끝에 아리우스파의 주장이 정죄를 받음
- ③ 성부와 성자의 신적본질이 동일하심과 이것에 근거한 성부 성자 성령 세인격의 한 하나님되심을 확증하는 니케아 신조(Nicene Creed)가 채택됨
- ④ “나는 천지의 창조자이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만드신 한 분의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태어난 신중의 신이며 빛중의 빛이고 참 신중의 참 신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와 성령으로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신 후 삼일만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있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는 만들어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무로부터 지음바 되었다.’ ‘그는 또 다른 하나의 본질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가변적이거나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에 의해 정죄를 받는다.]”

4. 니케아 신조의 핵심내용 정리

- 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신 인격체(person)이시면서,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룸
- ②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모든 세계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 부터 나신 분”
- ③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 빛으로부터 나온 빛, 바로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 ④ “태어나셨고, 지음받지 아니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본질을 가지신 분”
- 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해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와 구원사역〉

1.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 ① 분명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된 인격이다.
- ② 그런데 세위격이 분리되어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 ③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된다고?=> 세분의 하나님들, 곧 “삼신론”(tritheism)이 됨
- ④ 그럼 구별된 세위격이 어떻게 세하나님들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 ⑤ 그 해답=>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라는 용어!

2. 페리코레시스의 의미

- ① 상호내주(mutual indwelling), 상호 침투(mutual penetration), 상호 참여(mutual participation)의 뜻!
- ②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내주(mutual indwelling), 혹은 상호 침투(mutual penetration), 혹은 상호 참여(mutual participation)을 통해 하나됨과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

3. 페리코레시스의 성경적 근거

- 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개념을 풍성하게 찾을 수 있다.
- ② 요 10:37-38,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찌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 ③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상호 내주”(Perichoresis)의 핵심이다.
- ④ 헬라어에서 “~안에 있다”는 말은 “연합”(union)의 개념이다!
- 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는 분명 구별된(distinguished) 인격체이나, 상호 내주(相互內住, mutual indwelling)를 통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
- ⑥ 상호 내주를 통한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
- ⑦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있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라!”
- ⑧ 그리고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심

4. 요 14:9-11 절

- 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 ② 어떻게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 수 있는가?
- ③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과 상호 내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
- ④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되는 것이다.

5. 요 14:19-20 절

- 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 ②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란 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

- ③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볼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④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마 28:20)
- 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요 14:16)을 통해 성취된다.

6. 그럼 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되는가?

- ① 바로 페리코레스스 즉 “상호 내주”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 ②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거하시기 때문
- ③ 그러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

1.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

- ① 요 17: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 ②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2. “친교”라는 단어의 중요성

- ① 이것의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
- ②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fellowship” 곧 “교제”로 많이 각인되어 있다.
- ③ 그런데 koinonia 의 원어적 의미=> 원래 부부간의 성적 관계(intercourse)를 뜻함
- ④ 부부는 두 몸인데, 결혼을 통해 “한 몸”됨(창 2:24, 고전 6:16)
- ⑤ 부부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었으니, 자연히 부부간의 생각, 사상, 행동, 물질 등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며,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 ⑥ 이것 때문에 koinonia 에는 “participation”(참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⑦ Koinonia(친교 혹은 사귀어)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잘 드러내 주는 표현도 없다!
- ⑧ 영원전부터 한 신적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상호 구별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시고, 상호 참여, 상호 섬김, 상호 사랑을 통해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으로 나아가신다.

3. 서로 사랑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 ① 요 3:35-36,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②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 ③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④ 요 14:30-31,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4. 근거구절들에 대한 해설

- 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의 결과가 아닌 철저한 상호 사랑이다.
- ② 이것은 세상적인 의미의 “give and take”와는 차원이 다르다.
- ③ 성부와 성자의 상호 사랑은 처음부터 서로간에 주는 사랑이다.
- ④ 사랑하여 섬기고 싶어서 어쩔줄 몰라하는 사랑이다.

5. 서로를 영화롭게함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 ① 요 13:31-32,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 ② 요 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 ③ 요 17:4-5,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 ④ 요 16:13-1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6. 근거 구절들에 대한 해설

- ① 아들과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영광을 가지심
- ②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여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성육신하사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빌 2:6-8)
- ③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부활로 그의 무죄함과 그의 아들됨을 확증시켜주심
- ④ 또한 아들을 자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이 그의 발아래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빌 2:9-11)
- ⑤ 이것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심

- ⑥ 성부와 성자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림은 자기 영광을 버림과 낮추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세상적 영광과 거리가 먼 모습!
- ⑦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추구할 것은 성도 상호간에 서로 자기를 낮춤과 남을 높이는 삶!
- ⑧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진리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심
- ⑨ 이러한 상호 사랑, 상호 영광돌림, 상호 섬김을 통한 하나됨은 구별된 세위적이 서로 간에 온전히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참여를 통한 완전한 “친교의 공동체” 곧 완벽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

<구원사역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

1. 구원의 기원=>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 ② 엡 1:4-6,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 ③ 선택의 주체=> “성부 하나님”
- ④ 선택의 시간=> “창세전”(엡 1:4)
- ⑤ 선택의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in)”(엡 1:4)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through)”(엡 1:5)
- ⑥ 선택의 근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기쁘하신 뜻을 따라”(엡 1:4,5)
- ⑦ 선택의 목적=>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사,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함”(엡 1:4,6)

2. 구원의 성취=> 성자 하나님의 대속사역

- ① 엡 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 ② 구원의 근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 ③ 구원의 방법=> “그의 피로 말미암아”
- ④ 구원의 성취=> “구속(救贖, redemption)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3. 구원의 적용=> 성령 하나님의 적용사역

- ① 엡 1: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 ② 구원 적용의 방법=>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 ③ 구원 적용의 수단=>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 ④ 구원 적용의 확증=> “약속의 성령을 보증(保證, guarantee)으로 우리 심령에 인(印, seal)치심”